



EMERiCs

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

<http://www.emerics.org/>

2018. 09. 06. | 인도·남아시아

「이슈&트렌드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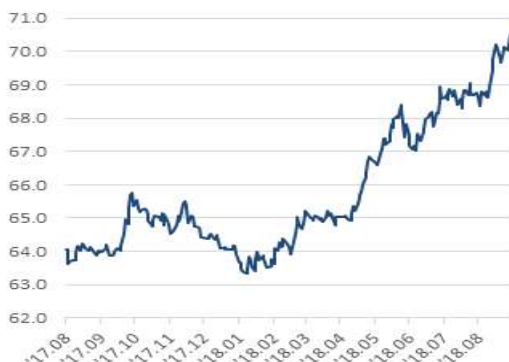
인도 루피화 환율, 달러대비 사상 최고점 경신

작성 □윤지현 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)

- 최근 달러대비 인도 루피화(INR) 환율이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8년 8월 29일, 사상 최고점인 70.51 USD/INR를 기록함.
- 루피화 환율은 지난 8월 16일 최초로 달러당 70루피선을 돌파한 뒤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.
 - 인도중앙은행이 지난 4개월간 약 25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, 루피화 가치는 2018년 들어 10.2% 가량 폭락하면서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가장 큰 화폐가치 하락세를 보임.

그림 1. 인도 루피화 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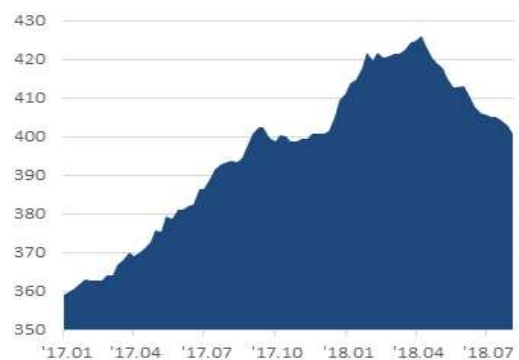
(단위: USD/INR)



자료: CEIC(검색일: 2018.8.30.).

그림 2. 인도 외환보유고

(단위: 십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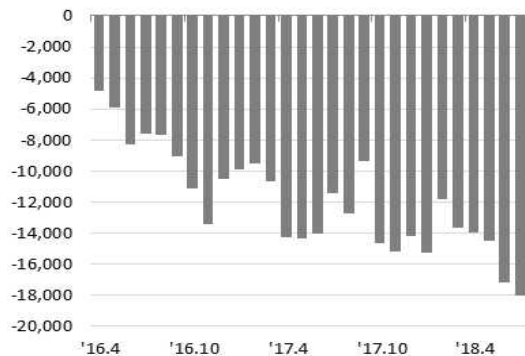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(검색일: 2018.8.29.).

- 이는 연초부터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△지속적인 유가상승 △미 금리인상 △미국발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 고조 등에 더해 최근 터키 리라화 폭락의 여파로 인한 신흥시장 통화 매도가 급증한 데 기인함.
- 유가상승으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, 미 금리인상,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인한 신흥국 투자심리 위축 등은 꾸준히 루피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해왔음.
 - 이에 8월 중순 터키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월말에는 인도 수입업자들의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루피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짐.
 - 이처럼 루피화 약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도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인도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.

- 2018년 7월, 인도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4.3% 증가하는 동안 수입증가율은 28.8%에 달했으며,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로 2013년 5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.¹⁾
- 인도정부는 유가와 환율이 현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2018/19년 원유 수입액이 전년대비 약 26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,²⁾ 무디스와 인도신용평가사(India Ratings) 등은 경상수지 적자가 2.5~2.6%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.

그림 3. 인도 무역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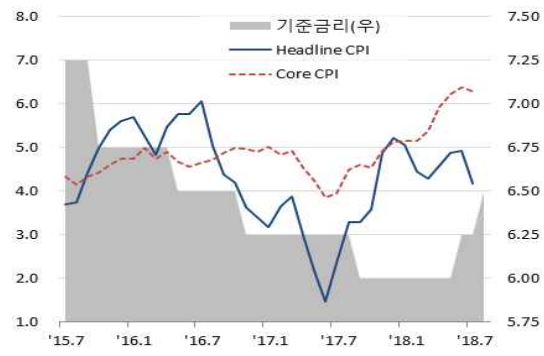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CEIC(검색일: 2018.8.29.).

그림 4. 인도 소비자물가상승률

(단위: %)



자료: CEIC(검색일: 2018.8.29.).

- 한편 지난 6월과 8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나, 루피화 약세와 에너지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.
- 인도중앙은행은 불안한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시키기 위해 환율방어와 긴축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.
 - 그러나 비교적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오던 인도중앙은행은 다소 소극적인 방어태세로 전환함.
 - 인도중앙은행은 최근의 통화약세가 인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신흥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,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보임.
 - 8~9월 물가상승 추이에 따라 인도중앙은행은 이르면 10월 초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.³⁾
 - IMF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유가상승과 루피화 약세를 인플레이션 가속화의 요인으로 꼽으며 인도중앙은행의 통화긴축정책 추진을 강조한 바 있음. **EMERiCs**

참고자료

IHS Markit, The Economic Times, Reuters, EIU, Business Today, CEIC, 인도중앙은행 등

1) 특히 루피화 약세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지난 6월과 7월 원유 수입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65.7%와 57.5%를 기록함.
 2) 인도정부는 2018/19년 예산 책정 당시 원유가격 65 USD/배럴, 환율 65 USD/INR를 기준으로 연간 원유수입액을 1,080억 달러로 추산했으나,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1,14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함.
 3) ING Think(2018.8.15.), 'India: No respite for the rupee.'